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혜택**으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혜택으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적고 장애가 심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을 2007년부터 대폭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 이동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5년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장애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약 5천억원의 재원을 들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이 손수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료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책의 강화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 복지 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현재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부터 LPG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간 국회나 관계부처, 장애계 일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바와 같이,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소득이 없거나, 차를 구입할 여유가 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부로서도 장애인 예산의 절반 이상이 LPG 지원에 편중되어,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1급~3급 장애인 한하여 3년간 LPG를 지원하되, 2010년 1월에는 동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내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절반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등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LPG 지원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지원 중단으로 장애인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불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복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드릴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장애인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를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획기적으로 인상됩니다.

이제까지 장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장애인들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혹은 유료 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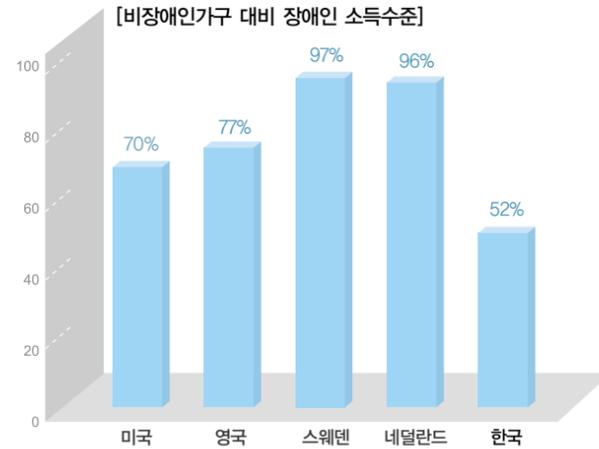


장애인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원하는 복지시책은 '소득보장'입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획기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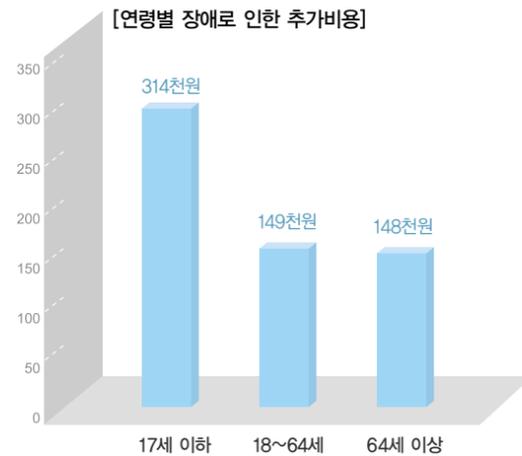
2005년 전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비장애인 가구 302만원의 52%에 불과하며,

비장애인 가구 대비 소득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 미국 70%, 영국 77%, 스웨덴 97% 등 타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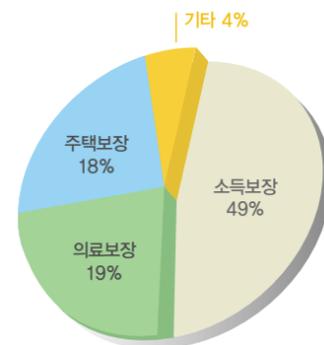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1인당 월평균 16만원의 비용을 교통비, 의료비 등으로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월평균 31만원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고 있어 장애인 가구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장애인 2명 중 1명이 '소득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소득보장(49%) > 의료보장(19%) > 주택보장(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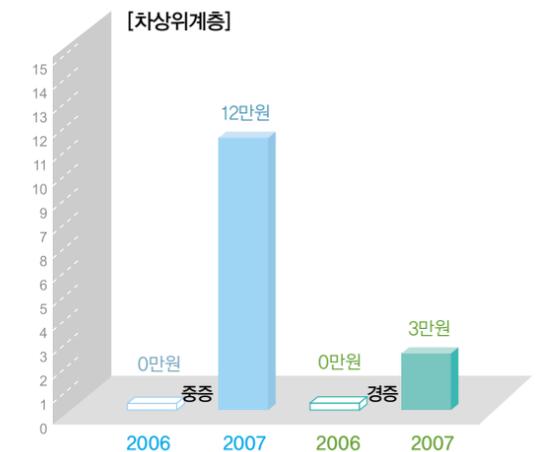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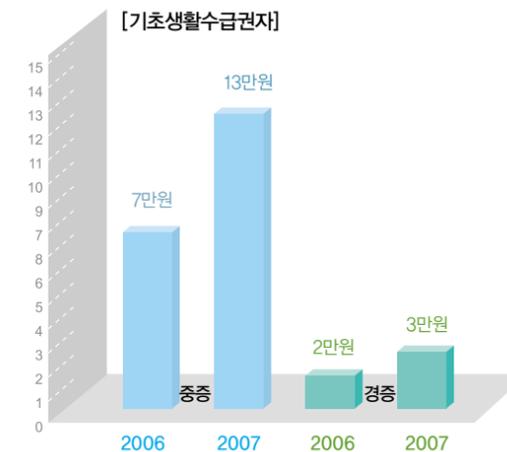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되며,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월 7만원의 장애수당을 월 13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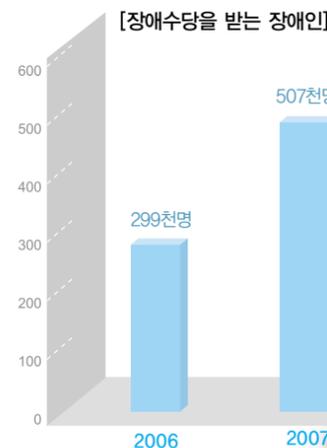
-또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되,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 이외에 차상위 계층(4인 가족기준 월 144.6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장애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새롭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원 받는 장애인은 2006년 29만9천명에서 2007년 50만 7천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두터워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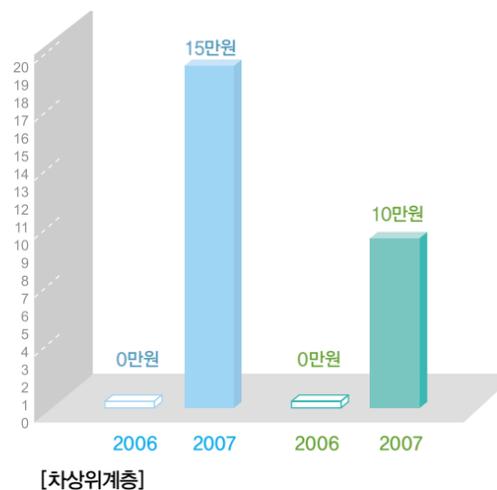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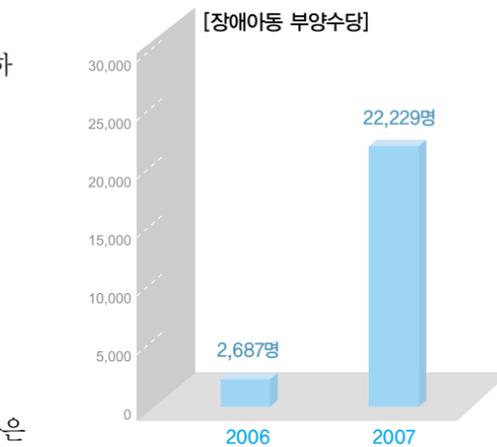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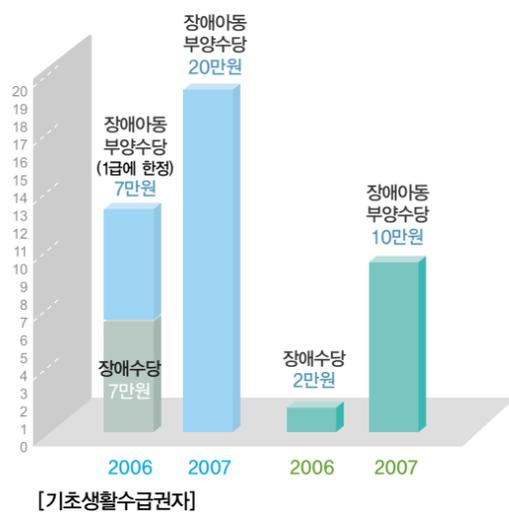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 내년부터 장애아동의 등급에 상관없이 차상위 계층이하의 모든 장애아동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금년에 비해 1.5배~3배까지 인상됩니다.

- 기존 월 7만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아동은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아동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아동은 월 10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 받게 됩니다.

※ 다만 기존에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던 장애수당은 폐지됩니다.



최중증 저소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료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합니다.

2007년부터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해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 3천여명은,

- 장애인 본인이 활동보조인을 직접 선택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료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비용 중 일부 (월 27만원)를 지원하여

-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가족의 장애인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 : 혼자서는 거동과 활동이 매우 곤란한 최중증장애인의 개인 생활과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

최중증장애인 : 휠체어를 혼자 움직이기에 곤란한 정도의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혼자서는 집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

【 선택적 복지 수혜 장애인 】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3,300명)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 :
유료요양 시설 입소비 지원(월 27만원)

※ 기초수급자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 가능





〈참고〉 제도 개선(안) 요약

구 분	지원대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역
18세 미만 장애 아동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아동부양수당 - 1급 : 월 7만원 장애수당 - 중증 : 월 7만원 - 경증 : 월 2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 중증 : 월 20만원 - 경증 : 월 10만원	최대 월 13만원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	장애아동부양수당 - 중증 : 월 15만원 - 경증 : 월 10만원	최대 월 15만원 추가 지원
	총 인원	2천7백명	2만2천명	2만명 추가지원
	총 예산	23억원	414억원	400억원 추가투입
18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수당 - 중증 : 월 7만원 - 경증 : 월 2만원	장애수당 - 중증 : 월 13만원 - 경증 : 월 3만원	최대 월 6만원 추가 지원
		-	선택적 복지 - 활동보조인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지원 ※ 시설입소는 무료
	차상위 계층	-	장애수당 - 중증 : 월 12만원 - 경증 : 월 3만원	최대 월 12만원 추가지원
		-	선택적 복지 -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료요양시설입소료 (월 27만원)	활동보조서비스 및 시설입소료 신규 지원
총인원	29만9천명	52만1천명*	22.2만명 추가지원	
총예산	1,660억원	4,793억원	3,133억원 추가투입	

* 장애수당 507천명 + 선택적복지 14천명

장애인 복지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이렇게 마련됩니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약 3천 5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 정부는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아울러 LPG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복지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에 약 5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총 5,207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예산이 1,683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금년 예산의 2배가 넘는 3,52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제도 개선 시 필요한 재정 수준] (단위:억원)

구 분	내 용	예 산
소요재정(A) 5,207억원	장애수당	4,640
	장애아동부양수당	414
	선택적 복지	153
2006년 예산(B) 1,683억원	장애수당	1,660
	장애아동부양수당	23
추가소요(A-B)		3,524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의 혜택이 더 많은 장애인에게, 보다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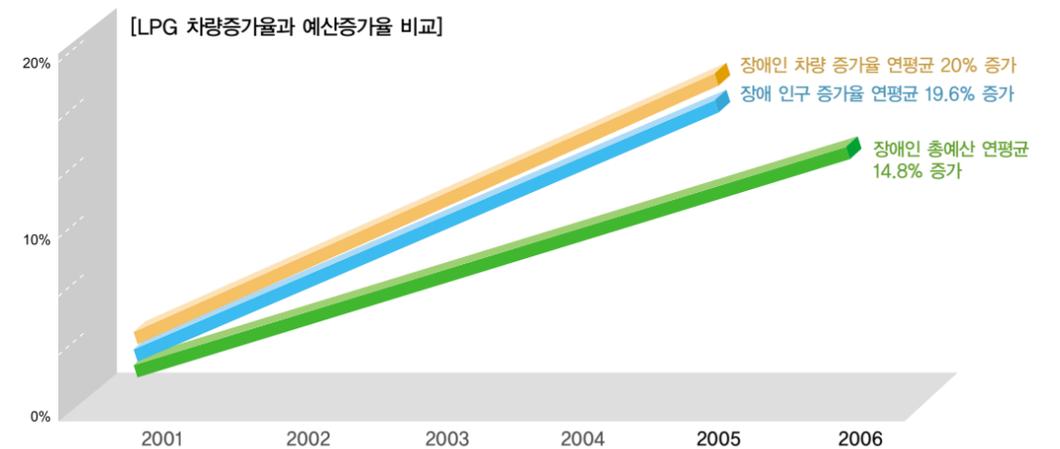
정부는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LPG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복지 재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LPG 지원제도, 그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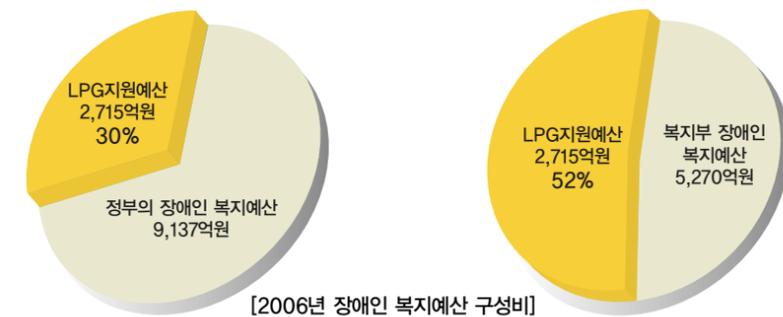
LPG 지원 예산이 해마다 급증하여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매년 평균 14.8%, 장애인구는 19.6%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LPG 차량은 이를 앞질러 매년 20%(연평균 54천여대)씩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LPG 지원예산이 장애인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태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정부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의 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의 52%가 LPG 보조금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균형 잡힌 장애인 복지정책을 꾸려갈 수 없습니다.





LPG 지원은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LPG 지원 제도는 장애인 복지예산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4명 중 1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 178만명 중 46만명(전체 장애인의 25%)만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차를 살 여유가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LPG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차를 구입 할 수 없거나 장애로 인해 운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원천적으로 LPG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LPG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불합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가계 평균 소득(311만원/4인)보다 소득이 많은 5만3천명과 2500cc 이상 대형 승용차 소유자 1만9천명도 LPG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권자 10명중 9명이 차량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LPG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LPG 지원이 필요한 보행장애인은 5명중 1명만이 LPG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LPG 지원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비장애인인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가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차량을 부정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칠려고 합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더 이상 신규로 LPG 지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LPG 차량을 구입하거나, 11월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 하였으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은 LPG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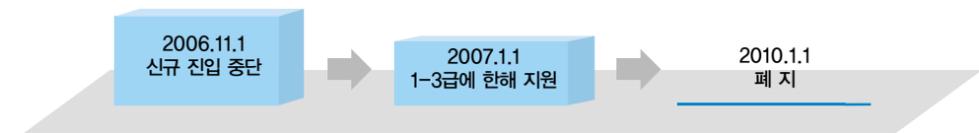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현재 수준과 동일한 월 최대 250리터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급~6급 장애인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LPG 보조금 지원을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LPG 지원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1급~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LPG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PG 제도 개선 주요 내용]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를 계속 구입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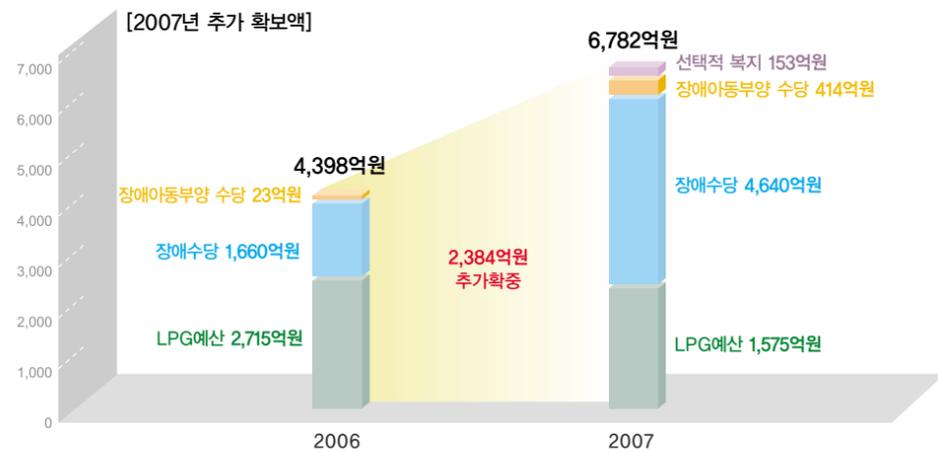
이와함께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기존에 받으시던 혜택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 재정이 대폭 확충됩니다.

LPG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로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 예산이 대폭 확충 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선택적 복지 시행을 위해서는 2006년 예산 4,398억원 이외에 2,382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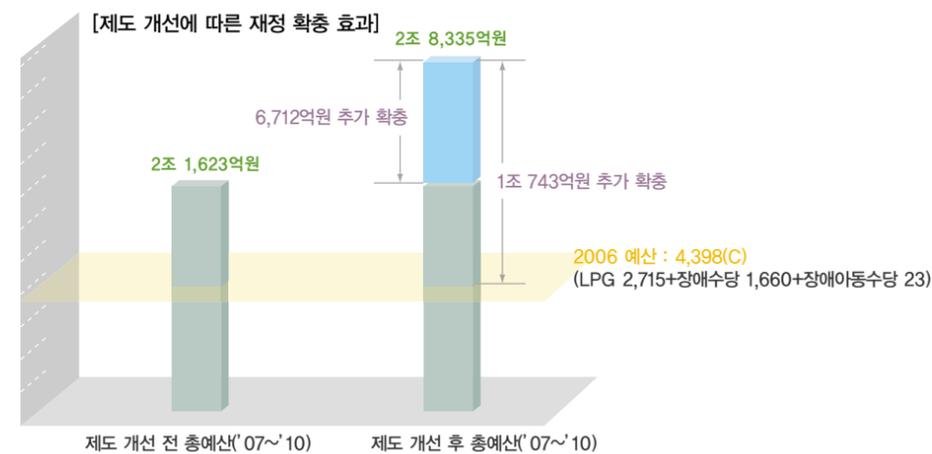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전액 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겠습니다.



LPG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현재의 LPG 예산은 전액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아울러 정부 예산의 추가 확보로 장애인 복지 재정이 더욱 튼튼해 집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07년~2010년까지 약 2조 8,33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경우 2006년 예산과 비교해 약 1조 1천억,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약 7천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충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LPG 차량은 매년 평균 54천대 증가 가정(01~05년 평균 증가분)
 ※ 장애인구 10% 증가 가정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07년 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습니다.

저상버스 :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도입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은 최소 80대, 인구 30만~100만은 최소 50대, 인구 10만~30만은 최소 20대의 특별교통수단 마련 의무화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외출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도 장애인 복지관 등 관련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 이후부터 인구 10만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지자체 1개소 이상 보행우선구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평가단(200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이동편의평가단(2007년 건설교통부)을 구성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이동에 느끼는 불편함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 young boy and an elderly man are laughing together in a field. The man is in a wheelchair, and the boy is leaning towards him. They are both smiling and laughing heartily. The background is a lush green field with trees in the distance.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장애인 복지재정이 대폭 확충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실현됩니다.

다양한 복지 시책이 새롭게 확대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장애인 복지재정이 대폭 확충됩니다.

LPG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충됩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46만명의 LPG 차량 이용자들에게 지원되었던 LPG 보조금(최대 월 6만원 /평균 월 4만원) 없어지게 되나,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51만명이 최대 월 13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장애 아동 2만명이 최대 월 20만원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만3천명의 장애인은 새롭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비스 선택폭은 넓어지고,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LPG 보조금 지원은 LPG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현물지원 방식이나,
 -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수당 등으로 더 많은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07년부터 장애 아동의 경우 최대 월 15만원,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최대 월 12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고,
 -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최중증의 저소득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어 보다 원활한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비효율적인 LPG 지원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복지 재정의 운용 폭이 넓어집니다.

LPG 지원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장애인 복지 재정을 대폭 확충하면서 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득보장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용 어 설 명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등을 감안,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07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430	734	973	1,206	1,405	1,610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등을 감안,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제도

2001년 7월부터 자동차 연료에 쓰이는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LPG 충전시 세금인상액 만큼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06년 현재 LPG 1리터당 240원(월 최대 250리터)씩 지원중임

보행장애인

휠체어를 타거나 앞이 안보이는 등 몸이 불편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말합니다.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합니다.